

Zero Cross Point를 이용한 전력선 통신 모듈의 FPGA 설계

이원태* · 최성수* · 원동선** · 임자용** · 이영철***
 *한국전기연구원 · ** (주)플레넷 · ***경남대학교

FPGA Design of Power Line Communication Modem using Zero Cross Point

Won-Tae Lee* · Sung-Soo Choi* · Dong-Sun Won** · Ja-Yong Lim** · Young-Chul Rhee***
 *KERI · **PLANET System CO., Ltd. · ***Kyungnam University

Abstract - 전력선 통신(Power Line Communication)은 전력선과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들을 간단히 제어하기 위한 기술로 제안되었으며, 홈오트메이션, 원격 검침(AMR)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 홈, 유비쿼터스와 관련해 다양한 홈 네트워크 시스템들이 제안되면서 이들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력선 통신 기술이 많이 제안되고 있다. 전력선 통신은 많은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전력선 채널에 대한 정확한 채널 모델링과 전력선 모듈의 성능에 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선 통신을 위한 전송선로의 주파수에 대한 잡음과 임피던스 특성 및 전력선 채널에 데이터 신호를 Chirp-SS(Spread Spectrum) 신호로 맵핑하여 채널의 Zero Cross Point 구간에 전송하였을 때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설계된 FPGA 보드를 비교분석 하였다. 채널 모델은 배경 잡음과 할로겐 잡음, 전송선로의 감쇄 특성만을 고려하였으며, 전력선 채널 상에서의 Zero Cross Point를 이용한 전력선 통신 모듈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전송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식 (1)과 같다.

$$Z_L = \sqrt{\frac{R+j\omega L}{G+j\omega C}} \quad (1)$$

특성 임피던스는 전력 발생과 시스템 분포에 대한 전송 선로의 임피던스를 의미한다. 특성 임피던스는 전력 시스템 설계자에게 시스템 임피던스 레벨의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전력 시스템 임피던스 레벨은 효율적인 전압 배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부하 쪽에서 소스 쪽으로 보면 소스 임피던스는 매우 작다.

그리고 전송 선로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다른 중요한 성분은 전달 상수로, 식 (2)와 같이 표현된다[2].

$$\gamma = \alpha + j\beta \quad (2)$$

1. 서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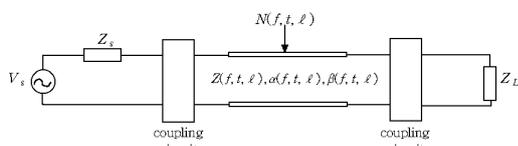
통신 서비스의 발달로 인하여,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보급에 따라, 홈 네트워크 기술과 연동된 정보 활용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다. 전력선(Power Line)을 매체로 한 디지털 가전기기의 네트워크는 Plug in 만으로 작동이 가능한 설치 및 사용의 용이성, 추가 기기의 설치가 Plug in 만으로 가능한 디지털 가전 네트워크의 확장성 그리고 추가 배선의 불필요로 인한 가격 경쟁력 확보 등을 바탕으로 홈 네트워크에 있어 최상의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차세대 기술의 집합체인 스마트 홈이나 유비쿼터스와 같은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통신 기술들을 적절히 융합해야 한다. 전력선은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유비쿼터스에 가장 근접한 개념을 선로 자체만으로도 지니고 있고, 이를 이용한 전력선 통신기술은 이들 시스템에서 가정 내 백색 가전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평가 된다.

전력선은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송선로가 아니므로 데이터 손실, 회선과의 간섭, 잡음, 임피던스 부정합 등으로 인한 많은 변화가 발생한다.[1] 전력선은 선로의 다양한 부하에 따라서 채널의 임피던스 값이 변하게 되며 전력선을 통해 정보 전송을 위한 신호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전력선 통신에서는 주파수의 선택적 페이딩 현상과 랜덤하게 발생하는 임펄스 잡음, 60Hz 동기잡음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OFDM 변조방식과, Spread Spectrum 방식, BPSK 변조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선 통신에서 전송선로의 채널 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성을 분석하고, Chirp-SS 방식과 Zero Cross Point를 적용한 전력선 통신 모듈을 FPGA로 설계하고 성능을 분석하였다.

2. 본 론

2.1 전력선의 채널 특성

전력선은 전송 선로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행태로 모델링이 가능하다. 전송 선로의 특성은 저항 R, 인덕턴스 L, 컨덕턴스 G, 커패시턴스 C로 이루어지며 그림 1과 같이 표시된다.



<그림 1> 전력선의 채널 파라미터

여기서 α 는 감쇄 상수이고 β 는 위상 상수이다. 감쇄 상수는 전송 선로의 신호감쇄 특성을 나타내고, 위상 상수는 전송 선로 길이를 통과하는 동안 신호에 발생하는 위상 변화의 양을 의미한다. 전달 상수는 간단한 항으로 식 (3)과 같이 표현된다[3].

$$\gamma = \sqrt{(R+j\omega L)(G+j\omega C)} \quad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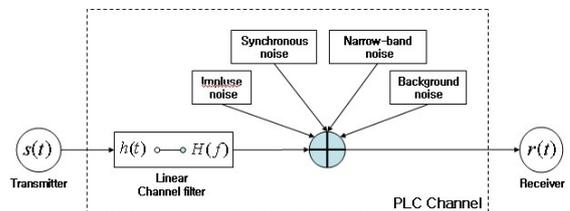
위의 방정식들을 이용하여 위상 상수와 감쇄 상수를 얻을 수 있다. 감쇄 상수와 위상 상수는 식 (4)의 관계를 고려하여 식 (5)와 식 (6)과 같이 간략화 된다.

$$\sqrt{1+x} = 1 + x/2, \quad x \ll 1 \quad (4)$$

$$\alpha \approx \frac{R}{2Z_L} + \frac{GZ_L}{2} \quad (5)$$

$$\beta \approx w\sqrt{LC} \quad (6)$$

그림 2는 전력선 통신에서 채널상의 잡음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며, 임펄스 잡음, 동기화 잡음, 협대역 잡음, 배경잡음이 있다. 임펄스 잡음은 전력선의 모든 채널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모든 채널에서 이산 임펄스 응답으로 유도되어 질 수 있다.



<그림 2> 전력선 채널에서의 잡음 구성도

전력선에서 전송된 신호는 수신기에 직접적인 경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도달한다. 각 경로는 지연 τ , 크기 $|d|$, 위상 Φ 로 묘사할 수 있으며, 식 (7)과 같다.

$$h(\tau) = \sum_{v=1}^N |d| \cdot \exp[j \cdot \Phi] \cdot \delta(\tau - \tau_v) \quad (7)$$

채널 특성에 있어서 9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배경잡음은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잡음의 레벨이 감소한다. 배경잡음의 스펙트럼은 주파수와

